지식기반사회의 인문사회과학 분야 지식 유형에 관한 담론*

The Discourse on the Knowledge Type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in the Knowledge Based Society

고 영 만(YoungMan Ko)**
권 용 혁(Yong Hyek Kwon)***

목 차

1. 서 론
2. 근대와 지식의 기능 변화
 2. 1 지식의 계통
 2. 2 지식의 역할 변화
3.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와 인문사회과학
 3. 1 지식기반 시대의 인간과 사회
 3. 2 지식기반 시대의 인문사회과학
4. 인문사회과학 분야 지식의 추세와 유형화
 4. 1 인문사회과학 분야 지식의 잠재력과 추세
 4. 2 인문사회과학 분야 지식의 시험적 유형화
5. 결 론

초 록

본 연구는 지식과 정보의 발달과 강화로 인해 우리사회가 지식기반사회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이는 지식의 위상이 변하면서 지식의 확대와 성장 속도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급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학문간의 경계가 약해지면서 상호 침투하는 형상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상호작용이 일반 교육에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분석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논점을 바탕으로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지식 유형의 변화 양상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지식의 계통과 기능의 변화뿐만 아니라, 지식의 역할 변화를 정리하였으며, 지식기반사회에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인간 및 사회상을 개괄적으로 제안한 다음 앞으로의 지식의 변화와 그것에 능동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인문사회과학적 프로그램을 제시함으로써 지식기반 사회에서 요구되는 일반이론 및 학제적 연구의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였다. 본연구는 이러한 방안 제시를 통해서 실험적인 방식이긴 하지만, 이 방안들이 지식기반 사회에 있어서 지식의 재편 방향을 지시하는 기초적 가이드 라인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결론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ABSTRACTS

This study is an examination of knowledge-based society's impact on knowledge, it's functions, and it's types in fields of humanities an social sciences. Knowledge-based society does not invalidate the definitive mechanism underpinning social coexistence today, but the importance of knowledge will increase greatly whereas the importance of the productive resources labor and capital will diminish. Therefore, knowledge-based society demands that we enter at this time into a discussion that takes new approaches to the knowledge. This study provides a doorway to a discussion of topics such as : Anticipating and characterizing the knowledge-based society, spectrum of fields of new types of knowledge for which typical differences can be ascertained, the interlinking of various disciplines in the respective field of knowledge, the new roles and types of knowledge in the fields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키워드: 지식기반사회, 포스트모던, 인문학, 사회과학, 지식
knowledge-based society, postmodern, humanity, social science, knowledge

* 본 연구는 2002년도 교육인적자원부 인적자원개발 정책연구과제의 연구비로 수행된 연구내용의 일부분임.
** 성균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ymko@skku.ac.kr)
*** 울산대학교 철학과 부교수(gil0915@hanmail.net)
논문접수일자 2002년 8월 20일
게재확정일자 2002년 9월 14일

1. 서 론

'지식기반사회'라는 용어는 후기산업사회에 관한 논쟁 즉 산업사회 이후의 사회 유형에 관한 논쟁이 한창이던 1960년대 중반에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당시에 다니엘 벨은 후기산업사회를 지식기반사회라고 기술하였으나 이 용어는 후기산업사회에 비해 그다지 큰 반응을 얻지 못했었다. 최근에 이르러서야 지식이 사회적 생산에 있어서 기본적인 요소로 인정되면서, 지식의 내용과 체계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지식의 기능에 관한 다양한 해석이 등장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사실만으로 우리 사회가 이미 지식기반사회에 와있다거나 지식기반사회가 된다고 확신할 수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지식과 지식기반 사회의 개념에 관한 논의를 바탕으로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지식 유형에 관한 분석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가설은 사회와 문화가 소위 지식기반사회로 진입함과 동시에 지식의 위상이 변하고 있다는 데서 출발한다. 특히 한국사회에 있어서도 지식의 기능 확대와 성장 속도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급변하고 있다는 점, 이로 인해 학문간의 경계가 약해지면서 상호 침투하는 형상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상호작용이 일반 교육에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기초적 사실로 인식하면서 출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가설에 입각해서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지식 유형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지식 특히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지식이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를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지식의 기능, 성장, 학문간 연계 및 확산의 문제에 대한 논의를 통해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지식의 발전 양상과 그 유형을 도출해 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지식은 목적 그 자체로 보다는 기능으로 역할을 한다. 오늘날에는 경제적·기술적 목표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지식은 실용적이며 도구적인 기능 이외의 다른 기능들도 가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인문사회과학적 지식이다. 이 분야 지식의 특성과 그 기능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인문사회과학 지식이 가지고 있는 기능의 프로파일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지식의 발전에 다양한 역동성이 작용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인문사회과학 분야 지식의 성장에 작용하고 있는 역동성과 다른 분야의 그것과의 비교 분석이 요구된다. 특히 오늘날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진단과 해결 방안은 대부분 개별 지식의 조각에 의거하거나 이것들의 단순한 합산 방식으로만 처리될 수 없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은 현대적인 지식 유형이 단일 학문 분야에만 토대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학문간 연계나 상호보완 또는 상호 협력을 통해 성장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학문간 연계에 따라 지식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이는 불가피하게 우리사회와 교육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학문간 연계의 문제는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지식 유형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학문의 대상은 자연, 인간, 사회 그리고 가치의 세계로 구분된다. 자연과학의 탐구 영역

이 자연이고, 사회과학의 탐구 대상이 인간 및 인간의 집합체로서의 사회라면 인문학의 영역은 인간의 사회·문화 생활에 있어서의 가치의 세계라고 말할 수 있다. 학술문화를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으로 대별하면, 전자는 자연자원의 탐구와 관리역량을 후자는 인적, 문화적 자원에 대한 지식과 연구역량의 증대를 담당한다. 본 연구는 다루는 지식의 범위가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영역에 포함되는 지식으로 국한되는 제한점을 갖는다. 자연과학의 영역까지 다루지 못하는 것은 자연과학의 지식이 본 연구자들의 이해 지평을 넘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이루어지는 논의에 사용된 분석 틀은 인문사회과학 분야 지식에 대한 해석학적 방법론에 입각한 시험적 유형화이다. 이런 의미에서 본 연구는 인문사회과학 분야 지식의 유형을 그려보고자 하는 하나의 시범적 탐구라 할 수 있다.

2. 근대와 지식의 기능 변화

2. 1 지식의 계통

인간의 특징은 행동이 이루어지는 범위에 의해 특징지워 진다. 인간은 각각의 상황마다 인류의 역사가 진행되면서 증가된 수많은 선택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수많은 선택 가능성 중에서의 선택 즉 행동은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이고 사회적으로 발전된 특정 모형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성 또는 합리성이라 일컫는 이 모형은 담론적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것은 오늘날 주류를 이루는 주요 선택 모형에 해당된다. 이때 지식은 행동의 배경 또는 합리화의 배경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통시적 관점에서 볼 때 담론적 또는 학술적 지식이 사회의 주류로 자리잡게 된 것은 근대의 후기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이며, 그 이전에는 여러 형태의 지식 모형이 행동의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지식사회학자 뷜(Walter L. Bühl)은 1984년 출간한 그의 저서 '지식의 계통(Die Ordnung des Wissens)'에서 지식의 형태를 마술적 지식, 신화적 지식, 이데올로기적 지식, 학술적 지식의 네 단계로 파악하고 있다(Bühl 1981).

(1) 마술적 지식

마술적 지식은 두 가지의 경험적 조건이 유사성을 통해 서로 결합되는 형태의 지식을 말한다. 이때 두 경험적 조건은 인과관계적 관련성을 갖는다. 모든 것에는 그 원인이 있다는 유형의 지식으로서 곰이 입힌 상처는 곰기름으로 치료하는 것 등이 마술적 지식의 예이다. 그렇지만 마술적 지식이 맞아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제대로 못해서 그렇다거나 아니면 그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등의 도덕적 설명이나 판단이 추가적으로 등장하게 된다.

(2) 신화적 지식(신화적-의식적 : mythical-ritual)

신화의 형태는 선악과 같은 모든 문화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모범(archetype) 신화, 문화적으로 특수한 신화, 예술적 신화의 셋으로 구분된다. 신화는 주로 극소수만이 존재한다는 근본성(fundamentality), 고대적 대립성과 같은 갈등지향(conflict-orientation) 및 과거

로의 연결을 꾀하는 고고학(archaeology) 등을 통해 그 특징이 드러난다. 신화의 기능은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는 인식적 불안정을 안정된 상태로 변환시키는 기능이다. 이는 다른 형태의 지식에서도 모두 나타나는 기능이라 할 수 있으며 예를 들면 인식이 문화와 결합되는 것이다. 둘째는 근본적이고 최종적인 해결(책)을 우주에 귀속시키고 또 우주를 일반적이고 자명한 것으로 이해하는 기능이다. 세 번째 기능은 공동체를 안정되게 만드는 기능이다. 사회적 드라마의 형태로 현실을 재현하는 것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특히 두 번째의 기능에는 세 가지의 신화 논리가 적용된다. 하나는 수사학적 의미교환(pars pro toto)이다. 유사한 것들을 한데 묶는 방식 즉 음식물 대신에 '빵'을 사용하거나 주거지 대신에 '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른 하나의 신화논리는 고대적 대립성(archaic opposition)과 이분법(dichotomization)이다. 또 하나의 논리로는 동굴 표시로서 곰을 표시하는 것과 같은 신화적 대용(mythic substitution)을 들 수 있다.

(3) 이데올로기적 지식 (목표지향적)

이데올로기적 지식은 두 가지 방향으로 서술된다. 하나의 방향은 의식의 사물화를 통한 신화의 탈신화(이때 사람은 이데올로기 실현의 도구가 된다)와 시간의 공간화(탈역사화 : 역사를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이해한다)이다. 다른 하나의 방향은 실체가 추론되는 것이 아니라 이데올로기에 대한 적응이 중요하게 되는 정체성의 강제로 구성된다. 이데올로기적 지식은 담론-반성적 지식의 결손 또는 결함 형태로 간주된다. 이데올로기에 의해 실체가 과장되면서 모든 것들이 한데 묶여지는 전체화, 사회적 일원화(social homogenization), 내부와 외부로의 양극화 등이 나타난다. 따라서 이데올로기는 폐쇄적, 목적론적(teleological : 현세-이데올로기, 저승-종교)지식시스템이다.

(4) 학술적 지식 (담론적-반성적 : dis-coursive-reflexive)

학술적 지식은 문제의 분석과 종합 그리고 가설을 토대로 하는 지식이다. 이때 가설은 관찰과 관련성에 대한 설명 및 관찰에 대한 설명의 검증을 통해 입증된다. 학술적 지식의 추진체는 이론의 발전과 개발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잘 구조화되어 있지 않은 문제들'이다.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지식의 주춧돌이라 할 수 있다. 학술적 지식은 개방성, 비목적성, 지식공동체, 잠재적 불안정성과 같은 특징에 의해 이데올로기적 지식과 구별된다. 뷜에 따르면 오늘날의 사회는 신화, 이데올로기, 지식의 혼합체이며, 그 혼합체 내부에서 신화는 점점 퇴보하고 학술적(담론적-반성적) 지식이 가장 우세한 지식의 재현형태로 작용한다.

2. 2 지식의 역할 변화

지식의 역사적 변화는 20세기에 들어 상당 부분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이에 관하여 독일의 정보사회학자 베어지히(Gernot Wersig)는 현재 가속화되고 있는 "정보홍수"라는 표면적 현상의 심층구조에 개인, 조직 및

문화에 대한 지식의 역할 변화가 자리잡고 있기 때문임을 강조하고 있다(Wersig 1993). 베어지히에 따르면 지식의 역할 변화는 20세기 초에 들어서면서 심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소위 근대 후기라는 시대적 전환기에 접어든 1950년대 후반 이후에는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Lyotard 1986). 베어지히가 말하는 지식의 역할 변화는 최소한 철학적 측면과 기술적 측면의 두 가지의 진화적 측면을 지니면서 통신기술의 영향에 의한 지식의 탈개인화(depersonalization), 관찰기술의 영향에 의한 지식의 신뢰화(believability), 표현기술의 영향에 의한 지식의 파편화(fragmentation), 정보기술의 영향에 의한 지식의 합리화(rationalization), 그리고 자율화의 형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Wersig 1987).

(가) 지식의 탈개인화(depersonalization of knowledge)

인쇄기술의 발명 이전에는 지식이라는 것이 개인적 지식을 말하는 것이었으며 개인들간의 구전을 통해 전달되고 전래되었다. 인쇄기술의 발명과 더불어 지식이 시간의 제약을 벗어나 저장이 가능하게 되었지만, 지식의 보급은 여전히 읽을 수 있고 또 읽은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구두로 전달할 수 있는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구텐베르그의 발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인쇄술(printing technology)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그 자신의 지식을 기록할 수 있게 하고 또 이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 전달할 수 있게 해주는 활판술(setting technology)에 있다.

학문의 역사를 볼 경우 지식의 개인화는 지난 세기까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개인적 경험과 전통을 바탕으로 하는 속담이나 구비전승 지식들이 오랫동안 지식의 골격을 형성해 왔으며, 학술적 지식이 토론되고 표현되던 장으로서의 쌀롱과 아카데미, 그리고 활자로 된 토론조차도 19세기 내내 개인적 요소를 지니고 있었던 것들이 그 예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19세기 후반 인쇄술이 대량처리가 가능한 방식으로 발전되면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윤전기, 식자술, 종이의 대량생산 등과 같은 기술적 발전은 지식이란 것이 그 지식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과는 상관없이 전해져야 할 무엇으로 되는 비구전적 지식 전달의 도입을 가져왔다. 지식 전달 과정에서 지식과 관련된 사람과의 관계가 배제되는 지식의 탈 개인화 현상은 오늘날 점점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식의 출처가 점점 불투명해지고 지식의 사용은 점점 개별화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좀 더 개인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지향하는 컨퍼런스 또는 워크샵 등이 증가하는 것은 이와 같은 지식의 탈개인화에 대항하는 시도라 할 수 있다.

(나) 지식의 신뢰화(believability of knowledge)

오랫동안 지식은 세상을 관찰함으로써 증명할 수 있었던 범위 내에서 생산되었다. 오랜 기간동안 세상의 관찰 방법과 관찰 기술들은 비교적 간단했으며, 어떤 것을 증명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다지 많은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증명하는 것이 가능했었다. 그러던 것이 대략 20세기초에 들어서면서, 특히 과학분야에 있어서는 여러 전문분야에서 생산되는 지식을

일반 사람들은 거의 이해할 수 없거나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과학적 지식은 일반 사람들이 믿어야만 하는 그 무엇이 되었다. 실제로 일반 사람들은 DNA-세트나 소립자를 믿는 것 말고는 다른 기회를 가질 수가 없다. DNA와 소립자를 증명하기 위해 그것들을 관찰하는 기술과 방법을 배우는 것 자체가 매우 힘들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신뢰화 현상은 과학적 지식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관찰기술의 발전은 위성과 텔레비전에 의해 일상생활까지 확장되었으며, 이것들은 우리가 믿어야만 하는 기술이 되어버렸다. 사람이 달에 착륙했다는 것을 일반 사람들은 증명할 수가 없다.

우리가 지식을 믿게되는 가장 중요한 근거의 하나는 그 지식을 만들어낸 사람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식의 탈개인화가 심화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점점 더 지식을 믿어야만 하는 현상이 공존함으로써 매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사람들이 어떤 것을 지식으로 받아들여야 하고 또 어떤 지식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관찰된 자료를 다룰 때 지식의 획득과 변형과정에서 사용될 수 있는 기술에 의해 원자료에 무엇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를 고려해야 한다. 지식의 신뢰화 현상이 심화될수록 지식의 획득 기술과 조작 기술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어야만 한다.

(다) 지식의 파편화(fragmentation of knowledge)

오늘날의 지식 세계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점점 더 분화되고 있다. 하나의 이유는 오틀레와 라퐁텡이 이미 20세기초에 지적했던 지식의 절대량이 증가한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모든 지식을 개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두번째 이유는 베버(Max Weber)가 말했던 바와 같이 문화적 활동영역의 자율성(autonomy)에 있다(Weber 1976). 다른 문화영역과 마찬가지로 지식의 활동영역도 그들 자신에게만 해당하는 서로 다른 기준들을 발전시켜 가면서 다른 지식 분야에 대해서는 자율화가 되어간다. 세 번째 이유는 파슨스(Talcot Parsons)가 말했듯이 이데올로기나 종교와 같은 목적지향시스템(final system)의 퇴조를 들 수 있다(Parsons 1967). 목적지향시스템의 퇴조에 따라 세상에 대한 인식과 이미지들이 다원화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지식은 각 분야마다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생성되며, 서로 다른 패러다임을 좇아가고, 서로 다른 방식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각각의 지식 분야마다 서로 다른 관찰기술과 관찰방법이 사용되고, 서로 다른 이론들이 그 지식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지식의 분야간뿐 아니라 하나의 학문 분야 내에서도 해당된다. 지식의 분화 현상은 상이한 분야와는 거의 토론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분화된 학문들에서 더욱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노라(Simon Nora)와 밍크(Alain Minc)가 다형화사회(polymorphous society)라고 말했듯이 학자들은 학문과 지식에 있어서의 다원주의가 확산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Nora & Minc 1979). 사람들은 모두 서로 다른 분야에서 생산된 지식들

을 필요로 하며, 서로 상이한 문화와 지식산업에 의해 제공되는 지식의 분화된 파편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구성하려고 노력한다. 이때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는 지식의 파편화 현상과 다원화 현상이 지식의 표현 기술과 표현 시스템에 관련된다는 점이다. 여전히 구두 또는 인쇄와 같은 지식의 표현기술이 적용되고 있으나, 새로운 표현기술(탁상출판, 컴퓨터그래픽, 광디스크, 데이터뱅크, …)과 지식표현 조직(출판사, 소프트웨어 업체, 멀티미디어 생산자, 지식유통 업체, …)의 발전 및 분화가 심화될 것이다.

(라) 지식의 합리화(rationalization of knowledge)

오늘날 지식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지식에 대한 지식의 증가와 사회를 조직화하기 위한 지식의 영향에 의해 우리의 세상이 무척 복잡하게 되었고 또 앞으로도 더 복잡하게 되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계몽의 확산에 따라 지식을 설명하는 것이 대략 세 가지 특성을 지닌 지식 즉 경험적으로 생성되는 지식, 증명될 수 있는 방법으로 재현되는 지식,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이 그 지식을 따를 수 있는 특성을 지닌 지식들에 의해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식의 특성은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고 또 표준화된 지식의 요소인 계산의 발전을 통해 충족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지식이란 것은 존재하는 모든 형태의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산 지향적이고 양화된 지식 부분을 의미하게 된다. 계산기술 또는 정보기술에 의한 계산의 적용이 최근 수십 년 동안 증가되어 왔으며 앞으로 더욱 새로운 기술들에 의해 계산의 사용이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의 사용 없이 사회를 조직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마) 지식의 자율화

근대 후기에 들어와 지식은 세 가지 측면에서 자율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첫째는 특정 종류, 특정 형식의 지식 즉 학술적 지식이 다른 형식의 지식에 비해 우위에 서게 되는 현상이다. 원래 여러 종류의 지식들이 있었으나 이런 것들은 이제 미신, 주관주의, 편견, 감정 등의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과학적으로 획득하거나 그렇게 보이는 지식(경험적으로 획득, 검증 가능, 객관적, 이론의 여지가 없음, 설명 가능, 계산 가능, …)이 우위에 서게되는 것을 말한다. 사실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다른 형식의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또 다른 형식의 지식 없이는 살 수 없으나 학술적 지식에 집중하도록 요구되고 있다. 둘째는 지식인과 학자로부터 지식이 자율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지식의 탈개인화 현상과 더불어 지식은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지식이 아니라 모두의 지식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지식이란 것이 이제 누구의 것도 아니므로 누군가의 지식이 되기 위해서는 그 지식에 적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지식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광범위한 지식과 적응 메커니즘을 소유해야만 하게 되었다. 세 번째는 지식의 생산이 세분화되는 현상이다. 지식의 생산이 자율화된 부분영역으로 갈라짐에 따라 오늘날의 학문 분야는 수도 없

이 많게 되었으며, 여기에서 생산된 지식들은 점점 계산이 복잡해지고 또 개괄과 검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3.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와 인문사회과학

3. 1 지식기반 시대의 인간과 사회

지식의 내용과 기능이 분화되고 각 분야가 강화되면서 지식 자체가 사회적 생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이로 인해 사회가 생산요소로서의 '노동'과 '자본'이 그 핵심을 이루고 있던 산업사회의 생산양식에서 지식과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지식기반사회로의 형태로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각 나라는 21세기의 국운을 지식기반사회로의 진입 여부에 두고 있을 만큼 지식과 정보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 벨에 따르면, "(지식은) 이성적 판단이나 경험적 결과를 제시하는 사실이나 개념에 관해 조직화한 진술의 집합체로서 어떤 체계적인 형태로 전달 매체를 통하여 제 3자에게 전달되는 것이다." (Bell, 1973, 176) 국가의 미래가 지식기반 사회로의 진입 가능성에 의해 좌우될 것이라는 각 국의 공통적인 예측은 지식과 정보가 개인 및 국가 경쟁력의 핵심요소이자 가치 창출의 원천이라는 판단에 의거해 있다. 특히 지식이 생산력과 분리될 수 없는 정보 상품이란 형태를 띠면서, 지식은 이미 세계적인 차원의 경쟁에서 가장 중요한 상품으로 작용하게 됨으로써 각 국은 이를 선점하기 위해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지식과 정보는 한 사회의 문화적 자본으로 기술되는데, 이것은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지식의 총체를 통칭하기도 한다. 이는 또한 20세기 산업사회 유형에서 21세기 지식기반사회 유형으로의 변화에 따른 지식과 사유 패턴의 변환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현대사회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지식과 정보가 신속하게 처리되고 전달, 공급되며, 지식과 정보의 생산, 소비, 유통, 분배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자리잡고 있다.

또한 현대 사회에서는 지식과 과학을 체계적으로 연결함으로써 일반적으로 지식 특히 과학적 지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정보기술의 발전에 의해 더욱 촉진되고 있다. 지식의 증가와 세분화는 학문의 세분화로 이어지는데, 현재 6,000개가 넘는 학문 분야가 있다고 추정되고 있듯이(Götsh 1995, 5), 지식과 정보의 다양성은 더 이질적이 되어가고 점차 복잡해진다. 공급의 과잉이 불가피해지고,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Federal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Research and Technology 1998, 7). 따라서 지식기반사회에서는 획일성과 중앙통제적인 방식을 특징으로 하는 모던적 지식, 사유 형태를 뛰어 넘는 포스트모던적 지식, 사유형태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동시에 탈국가적인 혹은 지역적이면서 보편적인 시각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보유통 기술의 발달로 전세계가 지구촌화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이것은 사유 대상의 확장과 사유 내용의 다양화로 이어지면서도 동시에 동시성, 즉자성, 수평성, 일회성, 가변성, 상호이해 등이 강조된다는 점

에 유념해야 한다. 이는 산업사회의 관료제적인 수직적이며 위계적인 조직에서 수평적이며 네트워크형 조직으로 변화함으로써, 의사소통의 수평적 네트워크형화에 상응하는 행위, 사유 패턴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정신노동이나 지식의 중요성이 점점 증가함으로써 지식노동자의 배출이 중요시된다. 인문사회과학은 지식 및 정보의 의미생산과 유통 기능을 담당하는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들의 창의력과 경쟁력을 배양하는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매체를 매개로 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상호관계에 있어서 인간성을 전제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총체적인 인간상실을 가져올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역으로 공동체적 인간관계에 대한 욕구를 증가시킬 수도 있다. 만약 대면적인 공동체적 인간관계에 대한 욕구를 가상현실을 통해 충족시키는 경향이 나타날 경우 인간성의 상실은 물론 사회적 관계의 소멸이 발생할 우려도 없지 않다(Baudrillard 1987, 10-17). 예를 들면 의사소통을 컴퓨터 코드의 상징적 교환이라는 측면에서 파악할 경우 인간 사유 결과의 질적인 차이를 강조하는 초월적이거나 심층적인 평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서는 의사소통이 평면적으로 작동되는 표면과 그 표면에서의 기호의 점멸만이 존재하게 된다. 이럴 경우 주체나 인간의 사적인 영역은 기호의 상징적 교환 과정에 종속됨으로써 자율적으로 기능할 수 없으며 공적인 영역 역시 사회적 현실이 하이퍼리얼리티의 논리에 종속되기 때문에 사적 영역과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된다. 이것은 인간의 자율성 및 현존하는 사회적 관계의 기능 정지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표면의 논리는 현실에서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계속 분출되고 있는 새로운 기호를 해독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즉 컴퓨터 화면에 떠오르는 기호의 방출(放出)의 문제만을 강조하면 일상적으로 생성되는 기호들의 수용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게 된다(Poster 1995, 115). 이처럼 기호의 표면적 특징과 그 기호의 사회적 해석 내용 및 그 기호 사용자 상호관계에서 형성되는 특징을 구분해야 하며, 이런 점에서 의사소통의 이중적 구조를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부작용을 메우기 위해서 새로운 환경에 부합한 인간관계를 참여자들이 스스로를 자율성과 책임감을 겸비한 개인으로 재구성할 수도 있다.

이렇듯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기존의 산업사회를 받치고 있던 가치관과 규범이 더 이상 타당하지 않게 됨으로써 과도기적인 정신공황 상태를 접하게 되며, 이는 새로운 다양한 규범과 가치의 등장을 인정하고 그 중에서 유용하고 바람직한 것들을 개개인이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요구한다. 결국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규칙과 규범을 우리 스스로가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중요하게 된다. 즉 엄청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자신에 맞는 정보를 수집하고 그것을 자기에게 알맞은 것으로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하는 것이다.

지식과 정보가 매우 빨리 축적되고 변화하는 시대에는 개개인은 스스로 변화할 능력을 체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정된 단순논리에서 복잡성과 다수성을 포함하는 복합사고로

그 사유의 폭을 넓힘으로써, 거대하고 고정된 단수의 진리가 아니라 다수의 복합적인 개별적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된다. 이는 다면적 사고를 기반으로 문화적, 인식론적 상대주의를 인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다가올 사회적 질서는 가치 다원주의와 세계적 단위의 최소윤리를 기반으로 구성될 것이다. 단일화를 강조하는 국민국가 중심 논리에서 다양성과 이질성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네트워크형 세계 시민국가 논리로 이동할 것이다. 따라서 네트워크 형 수평적 다원성을 기반으로 하는 인문적 사유와 그 안에서 공존하는 자율적인 개인들이 지녀야 할 상호이해와 타자의 배려를 제공하는 그리고 열린 다원주의 논리를 확산시키는 문제가 관건이 된다. 정보화사회에서는 자율적인 개인의 자유와 책임이 강화된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의 자유로운 행동을 허용할 것이다. 이럴 경우 공동체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공동체로가 될 것이다. 개인 중심의 질서와 가치관을 기반으로 느슨하게 결합되는 공동체 형태가 등장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공동체주의와 개인주의를 재정립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는 민주공동체에 필요한 교육을 강화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또한 개인의 역할 강화로 개인의 자유와 쾌락이 확대될 것이며 지성이 아닌 감성이 지배하는 시대를 예견한다면, 표면중심, 느낌중심, 쾌락 중심의 삶의 패턴에 대한 보다 정확한 진단과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

이는 지식기반사회에서 전통적인 커뮤니티와 지역 커뮤니티의 의미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점을 예고하고 있다. 정보고속도로에 기반을 둔 원거리 상호작용의 증가로 지역적 폐쇄성은 붕괴되는 동시에, 커뮤니티를 상징하는 집단 유대감의 근원으로서는 대면적인 상호작용보다는 문화적 상징과 관심이 중요해질 것이다. 다시 말해,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은 시민들 사이에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대화와 토론을 진작시키고, 시민사회 내 다양한 이해집단들간의 상호 연결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만 형성되는 비판적 공중 형성의 계기를 확장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다양한 정보와 의사소통을 통한 시민사회의 민주화(공공영역의 확대) 사이에는 '선택적 친화성'이 존재한다. 특히,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컴퓨터통신은 모든 정보를 손쉽게 변형, 조작, 복제, 전송, 보관이 가능한 디지털 형태로 전환시킴으로써 정보의 이용과 확산을 용이하게 한다. 또한 과거의 매체와는 달리 쌍방향(상호작용성)의 특성을 가짐으로써, 수동적인 정보의 흡수자가 아니라 정보공급자와의 부단한 상호작용, 토론을 통해 정보의 진리타당성을 검증하며 올바를 정보를 찾아가는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수용자를 만들어내고 있다.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기술은 시민사회 내부만의 민주화를 넘어 국가와 시장부분의 지배력에 대한 강력한 규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비판적 공중의 형성을 촉진함으로써 사회전체의 민주주의를 이루어내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에 착안할 필요가 있다(권태환, 조형제 1997, 306). 이처럼 지식기반사회의 미래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그 모습이 확연하게 달라질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3. 2 지식기반 시대의 인문사회과학

서구에 있어서의 인문학은 키케로(Cicero)의 'humanitas' 개념에서 유래한다. 'humanitas'는 로마사회에서 이상적인 인간형의 양성을 위한 하나의 교육과정으로 제시되었다. 그것은 웅변술, 문법에 대한 연구, 고전에 대한 강독 및 해석 등의 어문학적 수련으로부터 시작하여 음악, 기하학, 천문학, 논리학, 윤리학, 물리학, 법률, 행정 등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교육과정이었다. 인문학 중 문학, 역사, 철학은 전통적으로 인간생활에 있어서의 심오한 관심사들 - 삶, 죽음, 즐거움, 고통, 의무, 행복, 운명, 정의, 소외, 고독 등 -을 주제로 삼아왔다. 이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체험될 수 있는 것들로서 모든 사유와 지식의 출발점이다. 인문학에 있어서의 인간의 원초적 체험의 중요성은 가치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문학비평이나 예술비평은 명시적 가치판단과 그 판단을 뒷받침해주는 논거로 구성된 진술체계다. 그리고 철학 특히 규범 윤리학은 인간의 행위와 제반 사회현상에 대한 가치판단의 기준에 대한 문제를 그 핵심적 관심사로 삼고 있다. 인문학은 결국 인간의 품성, 올바른 가치관, 삶의 의의 등을 가꾸어 주는 인간을 위한 본질적 영역인 셈이다. 인간은 자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을 객체화하여 살필 수 있는 존재이다. 따라서 기술을 하드웨어라고 한다면 인문학은 기술을 통제하는 소프트웨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사회과학은 인간과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문제를 다룬다. 개인간의 상호작용은 물론 집단으로서의 사회현상을 분석함으로써, 사회의 본질을 밝히고 제반 사회문제에 대한 대응방향을 제시하며, 바람직한 미래사회를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사회과학의 체계화와 발전은 다양한 현실적 사회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도구적 해결책을 증대시키며, 사회의 심층현실에 대한 해석적 능력을 길러준다. 이를 통해 사회과학은 국가발전의 사회적 에너지를 증폭하고 이질적 자원의 창조적 결합을 촉진하며 투입요소의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자연과학과 공학이 과학과 기술의 선진화에 기여한다면, 사회과학은 과학과 기술의 사회적 효용성을 증대시킴과 동시에 사회적 삶의 증진을 위한 사회적 지식의 축적에 기여한다. 또한 역사학적 기초를 갖는 사회과학은 구성원들로 하여금 공적 과제를 자각하게 하고 그것을 미래의 전망 속에서 성찰할 수 있도록 해준다. 사회과학은 '사실'을 통해서 사회를 드러내 보여주며, 분석을 통해서 억압적 질서에 대한 비판 혹은 해방적 잠재력을 형성시켜 줄 수도 있다. 따라서 특정 사회에 대한 객관적 지식의 축적과 설명을 위한 방법론, 그리고 사회에 대한 가치체계의 수립 등은 사회과학의 필수적 구성요소다(배규한 1997, 66).

베어지히는 고전적 학문과 포스트모던 학문을 카스테라와 케익으로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고전적 학문은 세계가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추구하는 것에 바탕을 둔 학문으로서 각 학문은 한 조각씩 잘라내어 자신의 분야를 정한 이른바 카스테라 모델이다. 이에 반해 포스트모던 학문은 고전적 학문과 기술에 의해 야기된 산업

혁명의 영향이 남겨놓은 문제들을 풀기위한 전략개발의 요구를 토대로 발전한 학문으로서 카스테라 위에 크림 장식이 더해진 케익모델이라 할 수 있다. 이때 고전적 학문들은 케익의 바탕인 카스테라에 해당하며, 새로운 학문들은 이제 조각으로 나누는 것이 간단치 않은 크림덩어리와 같은 장식을 형성한다는 것이다(Wersig 1990).

'포스트모던' 시대의 지식은 총체적 종합이나 이를 기반으로 한 중앙 통제와 조절과 같은 근대적 지식 유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런 종류의 지식 유형의 효용성 상실은 근대 형이상학적 철학의 위기 및 이것에 의거해 있는 보편적 제도의 위기와 연관되어 있다. 수많은 서로 다른 언어 게임들, 즉 요소들의 이질성이 존재한다. 이것들은 제도에게 단지 모자이크적인, 즉 국부적 결정론을 제공할 뿐이다. 따라서 포스트모던적 지식은 차이에 대한 우리의 감수성을 세련시키고 불가공약적인 것(incommensurable)에 대한 우리의 인내력을 강화시킨다. 이러한 지식의 위상 변화는 정보전달 기술의 발달과 연관이 있다. 이 기술의 발달은 지식의 유통을 촉진시킨다. 지식은 정보화되며 정보량으로 변환될 경우에만 새로운 소통 회로로 들어갈 수 있고 활용될 수 있다. 그러므로 기존의 지식 중에서 이와 같이 번역될 수 없는 것은 모두 방치될 것이다. 따라서 지식의 공급자 및 사용자가 지식에 대하여 갖는 관계는 상품의 생산자 및 소비자가 상품에 대해 갖는 관계와 같은 형태, 즉 가치 형태를 가질 것이다. 지식은 팔리기 위해 생산되며, 또한 새로운 생산에서 더 높은 가치를 부여받기 위해 소비된다. 이 두 경우에서 지식은 교환되기 위해서 생산되고 소비되는 것이다. 지식은 자기 고유의 목적을 포기하고 '사용가치'를 상실하고 있다(Lyotard 1986, 15-21).

포스트 모더니즘과 인문사회과학에에 대하여 이종수는 "시대와 우리 스스로를 다르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생각되지 않았던 것들을 생각하게 해준다는 의미에서 인문사회과학의 연구기반을 강화시켜주는 전기가 될 것이고, 기존의 학술 연구와 교육 등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한 해체적 접근 방법을 시사해 주고 있다"고 하였다(이종수 1998, 121). 지식기반사회의 속성에서 포스트모던적 학문을 바라볼 경우 인문사회과학은 연구의 주체나 대상이 분리되지 않고 상호 관련되어 있다. 또한 방법론에 있어서도 단순한 관찰이나 실험에만 의존하지 않으며 이에 더하여 이해의 방법을 공유한다. 즉 인문사회과학은 과학적 논리의 엄격함과 더불어 연구 대상인 인간과 사회, 역사, 사항, 예술 그리고 그 저변에 배치되어 있는 생활세계에 대한 공감과 통찰을 요구하면서 탈경험적, 다원성, 우연성, 탈규제성, 분산성, 불확정성, 탈규격성, 탈연속성 등의 속성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4. 인문사회과학 분야 지식의 추세와 유형화

4. 1 인문사회과학 분야 지식의 잠재력과 추세

지식 유형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계량화하기 위해서 독일연방교육과학연구및기술부가 1996

년과 1998년 두 차례에 걸쳐 수행한 델파이 조사에 의하면 지식의 5개 주요 분야는 생명, 과학적 기초 및 기술, 인생의 의미·인간의 세계·역사·문화에 대한 인식, 인간과 사회공존, 사회의 조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 특별히 역동적인 주제 영역은 정보기술 및 매체의 영향력 행사, 국제경제와 일의 세계, 사회적 변화와 지식관리의 셋으로 분석된다(표 1 참조).

4. 2 인문사회과학 분야 지식의 시험적 유형화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지식과 정보가 매우 빨리 축적되고 변화한다. 이러한 시대에는 미래에 새로운 지식의 지속적 성장은 정보기술, 유전공학, 환경공학과 같은 새로운 기술분야에서 이루어질 것이며, 근대에서 이루어졌던 지식의 기능변화에서 볼 수 있듯이 지식기반사회에서의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지식 역시 대부분 기술적 경제적 성과를 높이는데 기여하

〈표 1〉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역동적인 주제 영역

주제 영역		부문	지식분야	효과와 대상
1	정보기술 및 매체	영향력 행사	의사소통과 사회적 관계	경제/기술적 성과 개인적 필요성 정치적 관리 지적/문화적 대응
			교육과 양육	
			일반생활 조건	
2	국제경제, 일의 세계	직업과 산업	시장의 국제화, 세계적 법인	경제/기술적 성과 정치적 관리
		일의 세계	자동화 효과	경제/기술적 성과 정치적 관리 개인적 필요성
			변화된 기능 요구	
			직업과 새로운 통신기술의 역할	
			대안 근무시간 규정	
		하부구조	기술적 하부구조 제공 및 보장 (전신, 운송, 설비, 쓰레기 처분)	경제/기술적 성과 정치적 관리
			혁신관리	개인적 필요성
3	사회적 변화 및 지식관리	지식과 정보	세계적 정보 및 지식시장	경제/기술적 성과 정치적 관리 지적/문화적 적응 개인적 필요성
			사료보관소, 도서관, DB 구축	
			정보관리	
			매체 활용능력	
		사회	사회적 변화	정치적 관리 경제/기술적 성과 지적/문화적 적응
			조직적 범죄	
		예술과 매체	예술의 현대적 형태	개인적 필요성 지적/문화적 적응
			경험적 사실의 새로운 방법 전달을 위한 예술의 수단, 실제 세계	
			문학작품의 창작과 제시의 새로운 방법	

〈Federal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Research and Technology 1998, 21-26〉

는 것들이 해당될 것이다. 따라서 다른 시대의 것과는 차별되는 지식의 유형과 개념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게 되며, 이는 일반지식, 학문간 연계, 프로그램적 지식 유형으로 집약되고 있다.

(가) 일반지식의 중요성

독일의 델파이 조사보고서는 지식기반사회에서 전문 지식에 대한 상대적 개념을 가지는 일반 지식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 개념은 어떻게 그릴 수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식의 급격한 팽창은 사회와 정치 그리고 지식관리뿐만 아니라 개인들에게도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이다. 사용가능한 지식의 양은 오래 전에 개인적 능력만으로는 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으며 오늘날 누구도 모든 지식과 정보를 관리할 수는 없다. 더 이상 18세기식의 보편적 지식인을 상상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지식에 의존하는 사회는 사람들이 지식과 정보의 홍수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지식의 복잡성을 줄이기 위해서 일반 교과목이나 전문지식과는 다른 특별한 지식과 능력을 필요로 하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내용을 강조하는 전문지식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의 그리고 다른 종류의 지식 개념으로서의 일반지식이 중요하게 되는 것이다.

일반지식은 일상적 의사소통의 기초가 되며 그것은 사회적 행위를 위한 필수조건이 된다. 일반지식은 전문가와 토론하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자신의 길을 찾기 위한 필수적인 자격과 출발점을 제공함으로써 전문지식을 향한 관문을 열어놓는다. 일반지식은 또한 개인이 자신만의 판단기준을 개발하도록 도와줌으로써 지식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 항해를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나침반 역할을 한다. 델파이 조사보고서는 이러한 일반적 지식 중에서 중요한 지식분야를 도구적·방법론적 능력, 개인적 능력, 사회적 능력, 기본적인 사실들에 관한 지식의 넷으로 유형화하고 있다(표 2 참조).

델파이 조사보고서에서 열거하고 있는 일반지식의 영역들은 개인이 즉각적으로 사회적 환경에 대응하고 사회 속에서 어울려 살아가기 위한 필수조건들로서 의미론적 용어로 설명될 수 있는 지식으로 구성되는 전문지식과는 질적인 차이가 있으며, 또한 개인적 능력과 같은 잠재적 지식도 포함된다.

(나) 학문간 연계

지식기반사회에서의 학문간 연계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첫째는 학문분야에 기초한 학문간 연계(subject/field-based interdisciplinarity)로서 유사한 방법론, 접근법, 개념을 사용하는 하위 학문 또는 관련 학문들간의 결합이다. 예를 들면 사회심리학, 정보사회학 등을 들수 있다. 두 번째는 문제중심의 학문간 연계(problem-oriented interdisciplinarity)로서 서로 관련이 없다고 여겨지는 학문들의 지식을 연결하는 형태를 말한다. 예를 들면 다문화 공존, 교육과 직업시장 등이 있다. 세 번째로는 창의적 학문간 연계(creative interdisciplinarity)로서 연상이나 창의적 유추 등을 통해 불러일으키는 새롭고 예외적인 결합이 형성되는 형태이다. 이는 매우 특이한 사고방식과 지식의 축적을 야기

〈표 2〉 일반지식의 네분야

도구적 능력	일반적 기초 및 문화적 능력	외국어, 전통문화능력, 논리, 창의적 능력, 기술적인 것에 대한 이해
	정보기술의 처리	현대 매체에 대한 지식,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사용, 정보탐색과 선별
개인적 능력	개인의 경험적 지식	자기 인식, 정체성, 돌립적 행위능력, 자기관리, 구조화, 문화적 경험, 감정관리, 사회소속감의 경험, 죽음·윤리·종교관리
	지식을 처리하는 개인적 능력	호기심, 개방성, 비판적 관점, 반성, 판단력
사회적 능력	의사소통 능력	표현력, 팀을 이루어 작업하는 능력, 절제력, 자기표현, 사회적 관계 능력
	사회적 책임	관용, 책임수용, 신중함, 유대감, 사회친화적 행동
기본적 사실에 관한 지식	시사 문제에 대한 사실적 지식	교육과 직업, 생태학, 유럽통합과 세계 공존
	기본적 사실	금전에 관한 일상 지식, 경제, 어린이 양육, 사회학, 교육, 역사, 종교, 문학, 철학, 정치, 과학기술, 지리, 생물학 등을 기초

〈Federal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Research and Technology 1998. 42〉

시키며, 예를 들면 퀘이너스의 경제순환론 같은 것이 있다.

(다) 프로그램적 지식

프로그램적 지식이란 지식의 폭발적인 증가로 전문지식보다는 지식 전체에 대한 폭넓은 안목과 시대변화를 정확히 읽고 그 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지식 노동자를 육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화된 지식을 말한다. 프로그램적 지식을 뒷받침하거나 프로그램적 지식의 뒷받침으로 이루어지는 지식 유형을 시험적으로 유형화할 경우 다음과 같은 형태로 설명해 볼 수 있다.

- 퓨전형 지식체계 : 단일 지식체계보다는 프로그램적 지식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즉 카오스적 형태의 지식의 작동을 가능하게 하는 지식체계로서, 오늘날 퓨전형 지식체계는 점점 그 효력을 넓혀가고 있다.
- 창의적 조립과 조합의 지식 유형 : 근대적 지식체계인 발견과 발명 중심의 지식생산 및 유통 유형에서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창조적으로 조립하고 조합하는 지식유형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를 위한 전제조건 역시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폭넓게 파악하는 안목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프로그램적 지식이라 할 수 있다.
- 네트워크형 지식체계 : 근대의 선형적, 가지치기형 지식 형태에서 상하좌우 지식체계간의 위계질서와 동종 형태의 지식재생산 구도가 허물어지고 있으며, 각 지식간의 협력연구가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이루어지는 비선형적, 다방향적, 공모양의 유기체적 지식지도가 그려지고 있다.

5. 결 론

지식기반 사회로의 진입과 이 사회에서 인

문사회과학은 어떤 방식으로 기능할 것인지를 일목요연하게 제시하려는 시도 자체가 모든 것을 종합하고자 하는 근대적 거대 이론을 추구하는 것으로서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 될 수도 있다. 만약 이러한 시도가 현재 6,000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는 학문 분야나 그 나름의 지식체계를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지식의 생성과 분화의 양상을 도외시한 채 지식 전 분야에 대한 중앙집권적인 조절과 통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산업사회의 획일적인 발상에 기초해 있는 것일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 글의 2장에서 논의했듯이 지식의 계통과 기능의 변화뿐만 아니라, 지식의 역할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지식은 담론적-반성적 형태를 띠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탈개인화·신뢰화·파편화·합리화·자율화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지식이 사회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경우 지식기반사회에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지식과 정보의 중요성이 계속 증가하는 사회에서는 이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전문가를 육성해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인문사회과학적 사유를 바탕으로 한 지식노동자의 양성은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무한 증식을 시작한 엄청난 정보의 바다에서 자신에게 유용한 정보를 수집하고 자기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지식과 정보의 생성과 유통이 가속화되고 있는 지식기반사회에서 개개인은 보다 유연한 사유와 학습 능력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는 획일적이며 이분법적인 단순논리에서 벗어나 현실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면적 사고방식을 체화해서 다양성과 새로움에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작업은 바로 인간의 지적 상상력과 의미 생산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기초학문으로서의 인문학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회적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사회과학의 영역에 속한 것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러한 시도 역시 그것이 사회 및 지식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제시하려 한다면 해결하기 어려운 방대한 작업으로 변화할 것이다. 그러나 21세기형 지식 유형에 대해서 현재를 기점으로 한 잠정적인 예측은 필요하며, 그것이 전체를 통괄하는 마술상자의 역할이 아니라 그 자체가 다가올 예측 가능한 미래의 방향성을 지시하는 규제적인 길잡이의 역할을 하는 보다 추상적이고 개괄적인 형태를 띤다면, 나름대로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러한 시도가 현재의 지식 유형과 기능의 변화에 의거할 경우 어느 정도 설득력을 지닐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의 4장 2절에서 제시한 세 가지 유형의 프로그램적 지식은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프로그램적 지식이 특정한 거대 이론을 제시하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앞으로의 지식의 변화와 그것에 능동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인문사회과학적 방안의 구체적인 예로서 이해된다면 이 글의 의의가 성공적으로 전달

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물론 지식의 유형에 대한 보다 상세한 구성과 이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학분 분야의 유사학문적, 문제중심적인 학제연구의 구체적인 사례들에 관해서는 앞으로의 작업을 통해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실험적인 시도는 아쉽지만 다음 작업으로 미룰 수 밖에 없다.

이 글이 지닌 의의를 덧붙인다면, 이 글에서는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학문의 전망에 대한 개략적인 길잡이 방향을 제시한 델파이 보고서 내용을 인문사회과학의 영역에 국한해서 재구성함으로써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지식 유형에 관한 설득력 있는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산업사회에서 필요한 지식 유형과 지식기반 사회에서 필요한 지식 유형을 구분하는 구체적인 지침 사례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정보기술 및 매체, 국제경제 및 일의 세계, 사회적 변화 및 지식관리라는 인문사회과학의 역동적인 세 분야를 정리한 것은 명료하면서도 현실적인 설득력을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델파이 보고서에서도 지적되고 있듯이, 이 글에서는 일반 지식의 중요성을 전문적인 지식의 학제적 연구의 기반으로 파악함으로써 지식기반 사회에 있어서 인문사회과학이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학문 분야를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즉 일반적 지식 중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네 개의 분야로 제기한 도구적 능력, 개인적 능력, 사회적 능력, 기본적인 사실들에 관한 지식의 유형화는 앞으로 대학의 학문 분야 및 커리큘럼 변경에 있어서 기본적인 조건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 글에서 제시한 시도는 지식기반 사회에서 새롭게 재편되어야 할 지식의 상호 연계 방식이나 이를 연결짓는 프로그램적 지식을 구성할 경우에 기초적인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권태환/조형제 편. 1997. 『정보사회의 이해』 서울: 미래미디어.

배규한. 1997. 인문·사회계열 학술진흥을 위한 장기계획. 『한국학술진흥재단 학술정책토론회: 21세기의 도전과 한국의 학술발전』. 1997년 11월 7-8일. [서울: 한국학술진흥재단]. 61-82쪽.

이종수. 1998. 한국 인문·사회과학의 학술진흥 방안에 관한 연구. 『고등교육연구』, 10(1): 119-138쪽.

Baudrillard, Jean. 1987. Das Andere Selbst: Habilitation, Hrsg. v. P. Engelmann, Wien.

Bell, Daniel. 1973. The coming of Post-Industrial Society. New York.

Bühl, Walter L. 1984. Die Ordnung des Wissens. Berlin: Duncker & Humbolt.

Federal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Research and Technology. 1998.

Delphi Germany Survey 1996/ 1998: The Potential and Dimensions of Knowledge-Based Society and Its Effects on Educational Processes and Structures. Munich/ Basel: BMBF.

Götsh, Johann. 1995. Offenheit und Selbstorganization. Implikationen für Bildungsorientierung in der modernen Informationsgesellschaft, Graz.

Lyotard, Jean-Francois.1986. Das postmoderne Wissen. Graz: Böhlau.

Nora, Simon & A. Minc. 1979. Die Informatisierung der Gesellschaft. Frankfurt a.M., New York: Campus Verlag.

Parsons, Talcot. 1967. Sociological Theory and Modern Society. New York.

Poster, Mark. 1995. The Second Media Age. Cambridge UK: Polity Press.

Weber, Max. 1976. Wirtschaft und Gesellschaft. Tübingen: Mohr

Wersig, Gernot. 1987. Wissensorganisation und -repräsentation. Freie Universität Berlin, Informationswissenschaft. Vorlesungsmanuskript 2.

Wersig, Gernot. 1990. Reflektionen zum pragmatischen Primat. 「Schwimmender Fachvortrag in dem 1. Internationalen Symposium für Informationswissenschaft」 Oct.17-19, 1990. Universität Konstanz, Informationswissenschaft. Bericht 2/90.

Wersig, Gernot. 1993. "Information Science: The Study of Postmodern Knowledge Usage." *IPM* 29(2): 229-239.